

설 특별기고



김옥애  
동화작가

요즘 사람들은 설을 기다리는 설렘이 약한 것 같다.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이 옛날과 다르게 결핍이 없어서일 것이다. 겨울에도 딸기와 수박 같은 과일이 있고, 설이나 추석이 만날 수 있었던 떡도 주변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다. 게다가 집 냉장고엔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릴 수 있는 음식들이 냉동 보관되어 있으니 설음식도 별것 아니게 느껴질 것이다.

어릴 적 우리들의 설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낯선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기분이다. 설날 그분경이면 사람들은 긴장을 했다. 남에게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했다. 깨끗한 새날을 맞으려고 목욕탕이 있는 친척집에 가서 목욕도 했고, 어머니들은 가족들이 설날에 입을 옷들을 준비했다.

나도 아버지 두루마기 동전을 새로 다는 어머니 곁에 누워 내가 입을 색동저고

세뱃돈과 설빔

리를 빨리 만들어 달려며 즐겼던 기억이 선하다. 설날엔 어머니가 만들어 준 때때 옷을 입고 동네를 돌며 세배를 다녔다. 저자(시장)에서 참기름을 파는 할머니와 방앗간을 하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었다. 가까운 친척이 아니어서 평소에는 잘 드나들지 않았지만 설날만은 사촌들과 함께 꼭 들러서 절을 했다. 순전히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절값을 받으러 돌씩 셋씩 마당으로 들어서면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반갑게 맞아 준 어른들이었다. 새 옷을 입고 그들 앞에서 절을 하면 덕담과 함께 당연하게 주머니에서 복돈을 꺼내 주셨던 어른들..

세뱃돈만 받으면 우리들은 용건이 끝났다는 듯이 일어서서 곧장 다음 갈 곳으로 향했다. 그렇게 세배를 다니면서도 나는 진짜 세배하고 싶은 사람을 잊지 않았다. 나쁜 아내나 사촌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만나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어 했다. 그는 전설처럼 절값을 크게 건넨 큰집 사촌 형부였다. 나도 딱 한 번 받았었는데 요즘 돈으로 오만 원 정도쯤 되는 큰돈이었다.

사촌 형부는 고향에서는 엄청난 부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서울 전자회사의 간부였던 그는 설날이면 자기 분가에 들른 후 우리 큰집에 와서 큰

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보았다. 그래서 그만그만한 또래의 아이들은 바로 그 틈을 노렸던 거였다. 하지만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큰집에 가면 형부가 이미 다 다녀간 뒤였거나 기다리다 잠시 우리 집에 와 있는 사이 다녀가 버리곤 했다.

큰집에서 온종일 놀며 기다린 사촌 언니는 늘 그 형부를 만나 세배를 했다. 그리고는 큰 세뱃돈을 받아 내게 자랑을 했다.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듯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너도 여기 있지 그랬어?" "내년엔 그렇게." 텅 빈 허전함으로 사촌 언니에게 다짐을 했었지만 실천이 되질 않았었다.

잊히지 않는 또 하나의 설날 풍경이 있다. 결혼한 해에 시댁으로 처음 설을 쇠러 갔었다. 일찍 혼자되신 시어머니는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아다 뒷목에 놓아 두고 잠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들이 모여 가래떡을 썰기 시작했다. 여동생들에게도 시키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척척썰고 잘도 썰었다. 그 모습이 무척 낯설고 놀라웠다. 내 친정집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오빠들 손에는 물론 방울 못 묻히게 한 우리 어머니. 남존여비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릴 적부터 동근 밥상에서 남자들과 따로 밥을 먹고 자랐다.

그런데 떡국 써는 일이 마무리되자 그 중 큰아들인 내 남편은 벽에 걸린 자기 어머니의 저고리를 손에 들었다. '저걸 왜?' 말없이 나는 지켜만 보았다. 내 앞에서 남편은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다. 설빔으로 입을 시어머니의 저고리에 동전을 뜯어낸 뒤 다시 새 동전으로 달았다. 나는 그가 흰 가래떡을 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뭏כן 배신감까지 느껴져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러다 얼른 생각을 바꿨다. 다행이다. 바느질 못하는 며느리에게 저 일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난감했을까!

설을 지나고 친정집에 들렀을 때 나는 대단한 뉴스처럼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댁은 참으로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해?" "명절에 아들이 일을 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주무시는데 대신 떡국 썰고, 어머니 설빔 준비도 하고..." 친정어머니는 내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아니 귀에 거슬러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분들은 안 계신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 사이 명절 풍속도 많이 달라졌다. 설빔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가사 노동 참여도 당연시되어 간다. 분명 내 시어머니는 오십년 쯤 앞서 가는 삶을 사셨던 것 같다.

기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광주형 일자리가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 어렵사리 타결되었다. 광주시민이 함께 이룬 쾌거로 적극 환영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화협을 통해 '적정 근로 시간'과 '적정 임금'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교육·의료 등을 '사회 임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이번 타결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협상 전권을 위임한 지역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경 일변도로 대립하는 노사 관계를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살릴 획기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의 13%, 수출

의 11%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의 버팀목이다. 직접 고용 40만 명에 간접 고용이 170만 명에 이르며, 철강·석유화학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8년 만에 최저치이고 중국 시장 점유율은 반토막이 났다. 국내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8년 만에 2.4배 증가한 16.5%까지 치솟았다. 10%대까지 달성했던 현대차의 영업 이익률은 외환 위기 때보다 낮은 1%대로 떨어졌고, 협력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3조 원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내 자동차 산업은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12.2%로 일본 7.8%, 독일 9.8%에 비해 훨씬 높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공장 신설은 전무했고 해외 공장만 늘어나면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차량이 403만 대로 국내 생산 316만대보다 많았다. 그만큼 국내에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22년 만에 이루

어지는 국내 공장 신설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선 1000cc 미만 경형 SUV 연간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 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친환경차 전용 모델과 전용 생산 라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2년 6개월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역설하고, 미래 친환경 자동차 육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수소차 예산 증액을 주도하면서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 확대와 가격 인하 약속을 받아냈다. 덕분에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당초 정부 예산의 2배인 4000대로 늘었다. 현대차는 기존 정부 로드맵보다 8배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고, 차량 가격도 현재 72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5000만 원대까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단에서

는 지금 총 사업비 3030억 원이 들어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시절,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80년 5·18 항쟁이 정치 분야에서 민주화 혁명이었다면,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일자리 분야의 민주화 혁명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는 반대와 파업보다는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 주길 당부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아닐뿐더러,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아니다. GM사태나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나 개재로도 확산될 수 있고,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조선업과 섬유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크게 확장될 수도 있다. 광주 노사민정 대화협 정신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빛그린산단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그제 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합의한 데 이어 어제는 합작법인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사는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의미 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직접 고용 1000명에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초임 연봉 350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자치단체가 주거와 교육·문화시설 지원을 통해 추가로 연간 800만 원 가량의 임금 지원 효과로 실제 측면에서도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고임금 정규직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임금 부담으로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내 생산 시설까지 해외로 이전하던 대기업들이 현대차처럼 국내 투자를 고려할 여지가 생겼다. 현대차가 22년 만에 국내 투자를 결정한 것도 광주형 일

자리가 물꼬를 터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흥남기 부총리가 상반기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2-3개 자치단체에 적용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반발은 그나마 작은 산에 불과하다. 당장 동일 업종에서의 동일 노동을 놓고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 간 간극을 메우는 일부 터가 쉽지 않은 과제다. 광주시가 1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지하는 문제도 현안 가운데 하나다. 더 큰 과제는 현대차가 위탁 생산하는 구조인 만큼 생산 불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어찌 됐든 노사 상생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앞으로 상생의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선수 선발을 마치고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경기시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노동계,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3년후 가동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징계 제도 개선 학교폭력 근절책도 강구해야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기계적 징계 절차'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 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중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 등 1~3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유예다. '학교 자체 해결'도 새 제도 도입되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건 은폐·축소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

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 폭력 징계 절차에 대한 교단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시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사소한 학생 갈등에도 학폭위를 무분별하게 개최하거나 징계 내용을 의무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가해자로 징계받은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 등으로 교단의 피로감 또한 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 징계 절차 완화는 그만큼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 교육청은 학교 폭력의 영구 퇴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은 모두 459종이다. 이 중 은행나무는 23종이며, 전남 지역에는 세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천연기념물이 아닌 은행나무는 도심과 시골길은 물론 농촌 마을 어디에나 한 그루쯤 서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다. 은행나무는 단 한 그루만으로도 마을 전체를 품고, 혹은 고적한 산사(山寺)를 지키기에 충분한 풍모를 지녔다. 이때문에 사찰이나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은행나무는 안녕을 수호

하는 천왕(天王)의 신

은행나무

키는 이 나무는 일제강점기, 8·15광복, 6·25 폭이자 단상목(堂上木)이기도 했다. 수백 년 된 은행나무라면 저마다 전설 하나쯤 서려 있는 이유일 게다. 우리 지역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들은 500년 이상의 수령을 뽐낸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것은 지난 1982년 제303호로 지정된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은행나무이다. 조선 성종 때 마을이 생기면서 심은 것이라는데 높이 27m의 노거수이다. 신통력이 있어 우는 소리로 전란과 나라의 불운을 알렸다고 전해진다.

이러 1997년 제385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 한가운 /재희중 사회부장 찬애@

종교칼럼

새해엔 마음을 바라보자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기해년 새해에는 마음공부로 한 해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옛 말씀에 삼일수신천재보 백년남물 일조진(三日修身千載寶 百年食物一朝塵)이라 하였습니다. 3일의 마음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티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 하는 한 청년에게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들고 온 열 개의 병을 내보이며 이 중에 한 병은 독이 들어 있고 아홉 병에는 꿀물이 들어 있다. 이 중의 어떤 병을 마시면 돈 천 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확률이 90%인데 설마 내가 독이든 병을 먹겠냐며 딱 한 번만 먹기로 하고 하나의 병을 골라 먹었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청년은 천 냥을 받아 들고는 마귀에게 다시는 내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이 생기자 청년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매일 술과 여색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갈 무렵 마귀가 다시 청년에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2천 냥을 주겠으니 한 번만 더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또 이 달

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꿀물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받은 2천 냥은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진 청년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를 직접 찾아가서 그 시험의 병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병을 마셨습니다. 결국 돈도 떨어진 청년은 다시 두 병 중 마지막 남은 한 병의 꿀물을 마시기 위해 마귀를 찾아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들고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꿀물이었습니다. 청년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남은 한 병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을 놀랐습니다. 왜 독약을 마시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갈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독약은 없어 내가 준 돈으로 인해 너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어. 하하 너는 돈으로 인해 너의 인생을 망쳤어!"

도(道)에 맞지 않는 부귀영화가 우리 영혼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갈 무렵 마귀가 다시 청년에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2천 냥을 주겠으니 한 번만 더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또 이 달

밖에 없습니다. 세상엔 마귀의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황금돼지의 해에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라보며 마음 속에 있는 부당한 욕심들을 없애는 마음공부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 종사님께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다."

황금돼지의 해에는 누렇게 금색을 칠한 돼지 저금통 선물들을 많이 합니다. 이 돼지 저금통에는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습니다.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는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 접어서 넣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가치는 저금통의 외형이 아닌 저금통 안의 내용물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학벌, 직업, 재산 등의 외형이 아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무슨 잘못이 있을 때 나의 허물을 먼저 살피는 아름다운 마음이 결정할 것입니다. 황금 돼지의 해에 우리 모두 마음 공부로 행복한 새해를 열거기를 심축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